



2. 출제개요

가. 출제의도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 고사는 지난 4년간의 출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경제>, <통합 사회>, <사회·문화>, <문학>, <언어와 매체>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형식의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체 문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사례와 제시문은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논술 고사는 최근 들어 자주 듣게 되는 경제 상황을 토대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배경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고, 응시자의 분석 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두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도 하고,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졌다고도 한다.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에 걸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때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물가 지수를 활용한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에 큰 해를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모든 경제 주체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경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을 여러 번 겪었다. 멀게는 6.25전쟁부터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제1·2차 석유파동 때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물가 상승으로 배급제가 실시되어 난방용, 조리용, 운송용 연료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2000년대 들면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살인적인 물가 파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낮은 물가가 지속되어 물가측면에서는 살기가 편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원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자 인플레이션(Inflation)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모의 고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했던 초인플레이션의 역사적 사례와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사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인 초(超)인플레이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어떠한 영향을 국내외 경제에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이다. 초인플레이션은 연간 수백 퍼센트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화폐가 사실상 휴지 조각처럼 가치를 잃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일간지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7건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대표적 국가는 베네수엘라다. 4년 넘게 초인플레이션이 지속한 베네수엘라는 최근 화폐 개혁을 시행했지만, 상황 타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55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비슷한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 발생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한 제시문은 문학 작품에서 가지고 왔다. 독일 문학계의 거장인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는 『어제의 세계』에서 오스트리아의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공감하는 데 문학 작품은 큰 도움을 준다. 문학 속에 형상화된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문제 [1]의 제시문을 통해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내외국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영국 경제 주간지인 Economist(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시사 매체에서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장들이 제시한 거시적 경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중앙은행을 책임지고 있는 장들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이유와 기준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제시된 지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 제시문요약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에 큰 해를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모든 경제 주체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경제 현상이다. 여기서 '지나치게'의 기준은 나라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선진국에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3%를 초과하면 대체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경제의 안정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준이 이보다 다소 높다). 물가상승률이 정말 극단적으로 높은 악성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를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라고 부른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200%를 넘으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가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에 경제가 가히 파멸적인 상황에 이른다. 인플레이션은 고등학교 교과서 중 경제(천재교육, p. 120), 통합사회(지학사, p.145), 통합사회 (동아출판, p. 263) 등에서 빠짐없이 소개하는 개념이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 초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개념 및 현상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어내어 논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 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심지어 수년 전에도 실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2014년부터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막대한 양의 화폐를 발행했다. 경제와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1만%를 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279만 7,500볼리바르를 내야 했던 적도 있고, 돈을 일일이 셀 수 없어 돈의 무게를 잰 다음 물건 값을 치르기도 했다.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초인플레이션 사례를 통해, 물가 안정을 지키는 일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이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국내외 경제에 끼치는 현상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예를 통해서 살펴본 제시문이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초인플레이션은 1920년대 초 독일에서 발생하였다. 1921년 6월부터 1924년 1월 사이에 독일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겪었다. 이 초인플레이션의 마지막 1년 동안은 연간이 아닌 월간 물가상승률이 300%를 웃돌았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독일의 물가는 무려 10억 배 가량 상승하였다. 1923년 11월 1일 빵 1파운드의 가격은 30억 마르크였으며, 소고기 1파운드의 가격은 360억 마르크였다. 빠른 물가상승률 때문에 상점의 물건 가격표는 시간 단위로 변경되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역사상 최고액권이 발행되었는데, 무려 1조 마르크짜리 지폐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문제 [1]의 제시문은 독일 문학계의 거장인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가 실감나게 표현한 오스트리아의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끼친 영향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어제의 세계』에서 당시의 시대상,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실감나게 묘사하였으며, 해외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었다. 1923년 오스트리아의 고급 호텔에 영국 실업자들이 거의 모든 객실을 채웠던 다소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초인플레이션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영국의 실업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으로 살면 자국에서는 빈민가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땀땀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독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히틀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배길 상황이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는 인플레이션의 의붓아들(a stepson of infl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시문 <가>를 토대로 문제 [1]을 풀기 위해서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어내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시사지에서 다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발췌·수정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소비를 위축시킨다. 내가 얻는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면 보유한 돈으로 사거나 할 수 있는 것의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인플



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게 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오르는 물가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면 점점 지갑을 닫게 되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져 저축이 감소하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 전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공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늘어나고 반대는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최근 단행하고 있는 긴축 통화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효과를 물가 안정과 경기 연착륙의 관점에서 논술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기 침체의 관점에서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우선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금리 인상, 재정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긴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급 감소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축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물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그만큼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어 실업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문항해설

<문제 1>

본 문제는 제시문 <가>에서 1923년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및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독일의 경제적 영향을 정리한 다음,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이 해당 국가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오스트리아의 최고급 호텔에서 장기 투숙할 수 있었던 영국 실업자들의 예를 논리적 및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에 제시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전쟁배상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의 실패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인플레이션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문과 문제에서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 표현력을 통해서 응시자의 이해력,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가>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1923년에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 및 그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배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 1919년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었지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은행에 마르크를 찍어내게 하여 재정을 조달하고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이지 못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을 늘려 배상금을 보상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을 때 물가 상승이 일어나며, 이러한 물가 상승에 의한 부정적 경제 현상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책 당국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우선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금리 인상, 재정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긴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23년 독일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내게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고 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영국 실업자가 오스트리아의 최고급 호텔에서 장기 투숙할 수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환율 변동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환율 변동은 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개인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준다. 오스트리아의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전반적으로 달러화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여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혹은 독일 내국인들은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의 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외국 화폐 금액이 줄어들어 해외여행 경비가 늘어난다. 반대로 영국의 실업자들은 실업 급여로 받은 영국 파운드화를 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함으로써 엄청난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초인플레이션은 영국의 실업자들이 오스트리아의 최고급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 2〉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긴축 통화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유동성은 수요의 억제를 일정부분 일으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물가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소비자에게 주게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물가가 하락한다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기 확장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나 투자를 줄이게 됨으로써 경기가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득 역시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의도하지만 자칫 경기를 침체시키는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안정화하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 전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공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즉,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늘어나고 반대로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되고 이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는 향후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나 투자를 줄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위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득 역시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의도하지만 자칫 경기를 침체시키는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지닌 양날의 검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물가의 안정화를 이룩하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 섬세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평가기준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5	• 초인플레이션에 관한 제시문 <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20	• 제시문 <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초인플레이션의 원인 및 영향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
	20	• 제시문 <가>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타당한 추론을 하여 문제에 제시된 사례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논술했는가?
문제2	5	• 제시문 <나>를 통해 최근의 인플레이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20	• 제시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를 논리적으로 논술했는가?
	20	• 제시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논술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논술했는가?

<문제 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에 관한 정의 및 특징 파악하기

둘째, 제시문 <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초인플레이션의 원인 및 영향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기

셋째, 제시문 <가>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문제에 제시된 영국 실업자의 오스트리아 최고급 호텔에서의 장기 투숙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기

첫째 부분

- 제시문 <가>에 제시된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의 정의와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점검한다.
- 인플레이션은 특정한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둘째 부분

- 제시문 <가>에 제시된 1923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을 제시문에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 제시문 <가>에서 제1차 세계 대전에 패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에 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취한 독일 정부의 선택, 즉 당시 독일의 중앙은행인 독일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어 통화 발행량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통화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독일에서 1923년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이 끼친 영향이라는 점도 적절하게 기술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도록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또 다시 물가가 상승하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화가 환율 시장에서 평가 절하되는 영향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분

- 제시문 <가>에 제시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오스트리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추론한 후, 오스트리아의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환율 시장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서방 국가의 화폐 가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국의 실업자가 실업 급여로 받은 영국 화폐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급격한 화폐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자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고급호텔에서의 장기 투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논술하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제 2>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시문 <나>에 나타난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리하기

둘째, 제시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셋째, 제시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첫째 부분

-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정리하여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타당하게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각국이 펼친 완화적 통화정책과 경기 부양책으로 인하여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공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즉,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늘어나고 반대로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둘째 부분

-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의 기대효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되고 이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동시에 소비자는 향후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면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기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셋째 부분

-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가계와 기업 입장에서 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나 투자를 줄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위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득 역시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의도하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자칫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결론 부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지닌 양날의 검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물가의 안정화를 이룩하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 섬세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